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가 28장

1.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측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2. 주의 크신 도움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 흘려 주셨네.

3.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맘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 인을 치소서. 아멘.

교독문 94번 새해(2)

인도자 :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가 족 :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인도자 :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가 족 :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인도자 :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가 족 :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인도자 :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가 족 :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인도자 :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가 족 :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배순서

우리 민족 고유의 명절인 설을 맞이하여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드립니다

신 앙 고 백 ····· 사도신경 ····· 다 함 께

찬 송 ····· 찬송가 28장 ····· 다 함 께

교 독 문 ····· 94번 (새해2) ····· 다 함 께

성 경 봉 독 ····· 신명기 6장 4-9절 ····· 다 함 께

4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5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6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7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8 너는 또 그것을 네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네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9 또 네 집 문설주와 바깥 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말 씀 ····· 믿음은 가정에서 시작됩니다 ····· 다 함 께

할렐루야! 설 명절에 온 가족이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명절은 단순히 가족이 모이는 날이 아니라, 우리의 뿌리를 돌아보고 신앙의 유산을 다음 세대에 전하는 거룩한 기회입니다.

오늘 신명기 6장, 이스라엘의 신앙 고백인 '쉐마(들으라)' 말씀을 통해 가정에서 시작되는 믿음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모세는 가나안 입성을 앞둔 백성에게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기억하고 자녀에게 말씀을 반복해 가르치라고 권면합니다.

첫째, 하나님은 우리 삶의 중심이 되셔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4절)
다신교 문화 속에서 이 고백은 분명한 결단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돈, 성공, 명예라는 우상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마 6:24)고 하십니다.
설 명절은 "내 삶의 주인이 누구인가"를 점검하는 시간입니다.
가족과 함께 고백합시다. "우리 가정의 주인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둘째, 하나님 사랑은 전심이어야 합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라"(5절)
하나님은 우리의 일부가 아니라 전부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때로 예배당에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일상에서는 세상과 타협합니다.
자녀들은 말보다 부모의 삶을 통해 배웁니다. 예배를 귀히 여기고, 기도로 시작하며, 이웃을 사랑하는 모습을 통해 하나님 사랑을 배웁니다.
이번 명절,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전심으로 사랑하는지 돌아보고 다시 헌신을 결단합시다.

셋째, 신앙은 가정에서 다음 세대로 전수되어야 합니다.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6-7절)
'부지런히'는 반복해서 가르치라는 뜻입니다. "앉았을 때, 길을 갈 때, 누웠을 때, 일어날 때"는 일상의 모든 순간을 말합니다.
신앙교육은 특별한 행사보다 일상 속 반복이 중요합니다. 식사 전 함께 기도하고, 잠들기 전 말씀 한 구절을 나누고, 받은 은혜를 감사로 고백하는 작은 실천이 자녀의 믿음을 세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번 설 명절, 단 5분이라도 가족이 함께 말씀을 읽고 나누십시오.
어른들이 먼저 감사 기도를 드리고, 자녀의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너를 사랑하신다.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하신다.
하나님께서 너를 축복하신다."
믿음은 교회 안에만 머물지 않고 가정과 일상에서 살아야 합니다.
신앙의 유산은 지금, 우리 가정에서 시작됩니다.
여러분의 가정마다 하나님의 임재와 평강이 충만하고, 그 믿음이 다음 세대까지 이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 기 도 문 ····· 다 함 께